



## 2016-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동향 분석 :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김 태 영\*

**A Research Synthesis from 2016-2020 Targeting for Infants & Toddlers at Risk and  
with Special Needs : Comparing Our Findings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Kim, Taeyoung\*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research studies targeting for infants and toddlers at risk and with disabilities from 2016 to 2020 and compare the findings with those of previous research synthesis(Cho, et al., 2016; Kim, 2014). **[Method]** Using search engine and websites of related journals, a total of 114 studies was found as appropriately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he inclusion criteria. **[Results]** First, the outcome of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analyzed studies were published at similar rates of each year from 2016 to 2020. As the result of researcher trend, 48.2% of the studies was found to be two authors involved and 21.9% of them was to be single author involved. Second, 48.2% of the studies have adults' participation and 28.9% of them have infants and toddlers. And the most popular research topics were 'Development and behaviors(22.8%)' and 'Early intervention and related services(21.9%).' And the analyzed studies used survey research(24.6%) and research synthesis(21.1%) in the highest rate. Third,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Experimental studies(12) and single subject studies(8) were analyzed as follows. The most popular IV was parents education program and DV was interaction and parenting efficacy for experimental studies. For SSD studies, each of IV was different and the most popular DV was social interaction. For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mpared with them of previous research synthesis(Cho, et al., 2016; Kim, 2014). The previous research synthesis have mostly infants and toddlers as the participants, which was different findings of this study. These two studies have 'Development and behaviors' as the most popular research topics, which was the same finding of this study. These two studies also have similar trends in that they used survey research following diagnostic research as research methods. **[Conclusion]** This study and two previous research synthesis have different inclusion criteria and framework of analysis and thus it would be meaningful if future research synthesis compare with previous ones with the same inclusion criteria and framework of analysis.

**Key Words** : Special needs, At risk, Infants and toddlers, Research synthesis, Comparing analysis

\* 제 1저자,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ktkty@naver.com)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 Honam University

## I. 서론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는 0-만 2세 영아를 포함한 학령전기 유아를 포함한다. 하지만 특수교육법(2007년)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만 3세 유아기부터 의무교육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무상교육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에서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분명 장애 및 장애위험의 영유아를 포함하지만, 특수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자가 이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위험 영유아는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박소영 외(2020)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법적 명시로 인해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는 종종 특수교육대상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애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장애 위험군은 교육적 지원 고려 대상일 뿐 어떤 법적, 정책적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상자임을 주목해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적, 상황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장애위험 영유아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영유아기는 발달이 진행중에 있는 연령이므로 환경적, 개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달적 지연을 장애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특히 영아기의 아동은 두뇌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생후 3년 동안 뇌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진다(송미정, 2019; 제민희, 이병인, 김미성,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연구(김정미, 정은주, 2015; 엄진명, 윤현숙, 2015; 조운경, 김수진, 송영희, 2016)에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아에게 조기개입을 적절히 제공하여 또래와의 발달적 기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발달적, 교육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기에 장애판정을 통한 교육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기발견을 통해 시기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여 발달의 어려움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송영희, 조운경, 2016; 조운경 외, 2016; 한연주, 김용희, 2018). 결국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위험군에 있는 영아들에게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 장애 아동으로 판정되는 비율을 줄인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한연주, 김용희, 2018).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는 유아기의 아동만큼이나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래도 최근 10여 년 동안 장애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조기중재 제공을 위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남보람, 이소현, 2014; 백유순, 이명희, 2014; 정혜윤 외, 2015; 조운경, 2012; 조운경, 2013; 한연주, 김용희, 2018). 또한 장애 영아나 장애위험 및 장애 영아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영, 2020; 김지영, 2018a; 김지영, 2018b; 김태영, 2014; 엄진명, 윤현숙, 2015; 장지은,

이소현, 이지연, 2016; 조윤경 외, 2016). 최근 연구된 문헌분석에는 특정 장애 유형(예: 자폐범주성 등)의 영아 대상으로 동향 분석한 논문(박지윤, 이병인, 2018; 장지은 외, 2016), 장애 영아를 대상으로 한 특정 연구유형(예: 단일대상연구 등)을 분석한 논문(김지영, 2018; 박지윤, 이병인, 2018),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정 주제(예: 부모 및 가족, 문제행동 등)에 대해 동향 분석한 논문(강성리, 조현근, 2018; 김진호, 차재경, 2017a; 김진호, 차재경, 2017b; 김태영, 2017; 김태영 2019; 조현근, 2019), 그리고 전반적인 장애 영아 혹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문헌분석 한 논문(김미영, 2020; 김지영 2018a; 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태영(2014)과 조윤경 외(2016)의 문헌분석 한 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2015년 이후)의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이 어떠한지, 선행 문헌분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 문헌분석 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에서 분석한 연도 이후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본 연구의 동향 분석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동향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도 매우 최근(2020년 12월)에 김미영(2020)이 유사한 주제로 문헌분석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서 2020년 12월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 동향 분석했다는 점에서 최근 10년 동안 관련 주제를 분석한 김미영(2020)의 결과와는 차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김미영(2020)과 선정기준(특히, 연령선정)이 다르며, 5년간의 관련 연구 동향 분석뿐 아니라 선행 문헌분석 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와 비교분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연구(2016-2020년)의 연도별 학술지 및 연구자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연구(2016-2020년)의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연구(2016-2020년)의 연구유형 및 유형별(실험연구, 단일대상연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본 연구(2016-2020년)는 2016년 이전의 문헌분석 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학술지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먼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교보문고스콜라, Newnonmun 등 검색엔진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엔진에 사용된 주제어는 ‘영아’, ‘영유아’, ‘장애위험’, ‘장애’, ‘발달지체’, ‘발달지연’, ‘학령전기’ 등이다. 이차적으로 유아특수 및 특수교육 관련 등재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는데, 검색한 학술지는 <유아특수교육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교육>, <특수교육논총>, <특수교육학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자폐성장애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등이다. 이 밖에 관련 주요 학술지 논문을 추가적으로 검색하였다: <언어치료연구>, <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열린부모교육연구>, <한국보육학회지>,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등. 이러한 자료수집 절차를 통해 14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143편의 논문 중 본 연구목적과 아래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29편을 제외한 결과, 총 114편이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2. 선정기준

분석논문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대상 논문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대상 연령은 0-만 2세 영아기이다. 하지만 일부 논문들은 영아뿐 아니라 영유아 혹은 학령초기 아동을 함께 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이런 경우 영아가 다수(60% 이상) 포함된 논문은 분석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논문 제목에는 영유아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에 영아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예: 백은령, 이은미, 2019)이거나 영아기에서 성인기까지 연령대가 너무 포괄적인 연구(예: 김삼섭, 2019)는 분석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와 관련된 동향분석이나 문헌고찰도 선정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게재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6)에서 2001년에서 2014년 3월, 그리고 연구논문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 관련 영아 대상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각각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논문의 질적 수준이 상호검증(peer-reviewed journal)된 전문학술지인 등재후보 및 등재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학위논문이나 학회 발표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분석기준

논문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구(김태영, 2017; 김태영, 2019; 조윤경 외, 2016; 조현근, 2019)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을 토대로 표 1과 같이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먼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논문의 학술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상자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이므로 유아특수 및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유아교육, 아동, 상담심리 등 다른 분야의 학술지도 포함되었다. 둘째, 연구유형은 교육 분야의 연구방법론(권순달, 2011; 성태제, 시기자, 2014)과 선행연구(조윤경 외, 2016; 조현근, 2019)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실험연구, 단일대상연구, 조사연구, 진단도구개발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기타로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은 영아 및 영유아, 성인, 문헌자료를 포함한 기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조기개입 및 관련 서비스, 가족지원, 보육 관련, 발달 및 행동, 통합, 검사(선별)도구개발, 기타로 구분하였다.

**<Table 1> Framework of analysis**

Division	Contents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CSE,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w/Autism,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etc.					
Journal	<table border="1"> <tr> <td>Early Childhood Edu.</td> <td>Journal of Future EC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mp; Review,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mp; Educare Welfare, etc.</td> </tr> <tr> <td>Others</td> <td>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etc.</td> </tr> </table>	Early Childhood Edu.	Journal of Future EC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etc.	Oth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etc.	
Early Childhood Edu.	Journal of Future EC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etc.					
Oth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etc.					
Researcher	<table border="1"> <tr> <td>1 author</td> </tr> <tr> <td>2 authors</td> </tr> <tr> <td>3 authors</td> </tr> <tr> <td>4 authors</td> </tr> <tr> <td>more than 5 authors</td> </tr> </table>	1 author	2 authors	3 authors	4 authors	more than 5 authors
1 author						
2 authors						
3 authors						
4 authors						
more than 5 authors						

**<Table 1> Framework of analysis (continued)**

Division	Contents
Types of Research	Research synthesis, Experimental research, Single-subject design, Survey research, Research for diagnostic tools, Qualitative research, Blended research, others
Participants	Infants & toddlers(age of 0-2), Young children(age of 0-6),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Types of participants Adults Teachers(pre-service teacher, ECSE teacher, childcare teacher, SE teacher), Principals, Social workers, Therapists, Professors
	Parents (including families)
	others Research for diagnostic tools, Qualitative research, etc.
Types of disabilities	At risk, Developmental delay(DD), Intellectual disabilities, Autistic spectrum disorders(ASD),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Orthopedic impairment & TBI, Speech & language impairment, etc.
Topics of Research	Early intervention and related services
	Family supports
	Childcare related
	Developments & behaviors (social, speech-language,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 screening tests
	Others (play-related, civic rights, research synthesis, etc.)

#### 4. 신뢰도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교수) 1인과 함께 분석대상 논문 114편 중 45편(약 40%)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차 검토 결과, 분석자 간의 일치도가 79%가 나왔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선정기준에 대해 재논의와 검토절차를 거쳐 2차 검토에서 87%, 3차 검토에서 94%의 일치도를 도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도별 학술지 및 연구자 동향

##### 1) 연도별 학술지 동향

분석논문 114편에 대한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표 2와 그림 1과 같다. 먼저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분석논문의 편수가 비교적 일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3.7%, 21.1%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2016년(20.2%)에 근소한 차이로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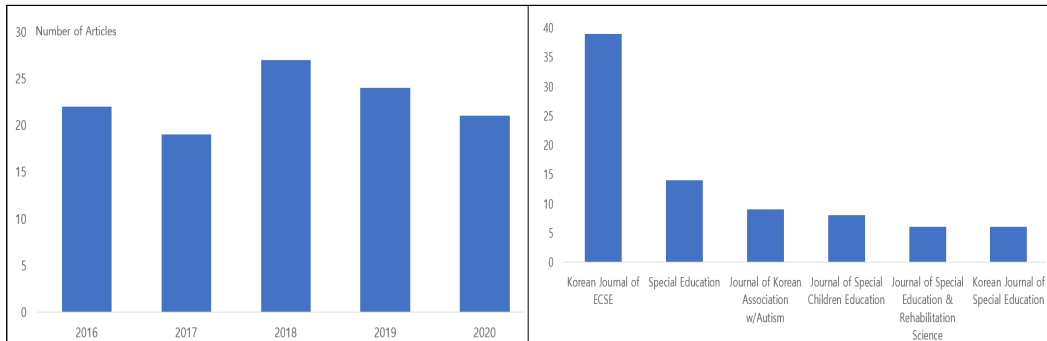
학술지 동향을 살펴보면 선정기준에서 밝혔듯이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를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하였으므로 단연 「유아특수교육연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특수교육」이 12.3%로 가장 많았다. 기타에는 3편 미만의 분석논문이 포함된 학술지로 「열린부모교육연구」, 「교육혁신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가 포함되었다.

연도별 학술지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유아특수교육연구」와 「특수교육」은 연도별로 대체로 비슷한 편수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논총」, 「정서·행동장애연구」의 경우 특정 연도에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논문이 다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Journal trends**

Unit : N (%)

Division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Korean Journal of ECSE	5	8	8	10	8	39(34.2)
Special Education	3	3	4	2	2	14(12.3)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w/Autism	3	-	3	3	-	9(7.9)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	4	-	1	1	8(7.0)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	1	4	-	1	6(5.3)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	2	-	4	6(5.3)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	2	-	1	-	3(2.6)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	-	-	-	-	3(2.6)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1	-	1	1	3(2.6)
Journal of Future EC Education	2	-	1	-	-	3(2.6)
Others	5	-	5	6	4	20(17.5)
<b>Total</b>	<b>23 (20.2)</b>	<b>19 (16.7)</b>	<b>27 (23.7)</b>	<b>24 (21.1)</b>	<b>21 (18.4)</b>	<b>114 (100)</b>



<Figure 1> Number of articles by the year & journals

2) 연도별 연구자 동향

연도별 연구자 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 위험 관련 논문 중 2인 저자 논문이 48.2%로 가장 많았다. 2인 저자의 논문은 매년 많았는데, 특히 2018년에 15편으로 가장 많았다. 2인 저자 논문 다음으로 단독 논문이 21.9%, 3인 저자 논문이 17.5%로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5인 이상 다수의 저자가 연구한 논문이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uthor trend

Unit : N (%)

Division	1 author	2 authors	3 authors	4 authors	more than 5 authors	Total
2016	3	10	5	2	3	23
2017	3	11	5	-	-	19
2018	8	15	3	1	-	27
2019	8	10	3	2	1	24
2020	3	9	4	2	3	21
Total	25 (21.9)	55 (48.2)	20 (17.5)	7 (6.1)	7 (6.1)	114

연도별 논문저자를 살펴본 결과, 5년간 3편 이상의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저자는 표 4와 같다. 특히, 논문저자 이병인과 조윤경이 각각 9편, 10편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 모두 단독 논문과 2인 저자 논문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대체로 균등하게 게재하였다. 또한 논문저자 이경숙은 다수의 저자들과 총 5편의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소현도 제 2저자로 5편의 논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김지영과 김태영은 단독으로 총 4편의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다.

<Table 4> Authors of the articles

Division	Authors who have published more than three articles for five years
2016	Kim, T.Y.; Song, Y.H. & Cho, Y.K.; Lee, K.S. & Jung, S.J.; Lee, K.S. and others(3 articles); Cho, Y.K & Choi, O. S.
2017	Kim, J.H. & Cha, J.K.(2 articles); Kim, T.Y.; Yoon, H.J. & Lee, S.H.; Cho, Y.K. and others (2 articles); Cho, E.K. & Cho, Y.K; Cho. H.K. & Lee, B.I.
2018	Kang, S.L. & Cho. H.K.; Kim, S.J. & Cho, Y.K; Kim, J.Y.(3 articles); Kim, J.S. & Lee, B.I.; Lee, B.I.; Cho, Y.K; Cho, Y.K & Kim, S.J.; Cho, Y.K. and others
2019	Kim, J.S. & Lee, B.I.; Kim, T.Y.; Yang, I. & Lee, S.H.; Lee, K.S. and others; Lee, B.I.; Lee, S.Y. & Lee, S.H.; Jin, D.R.& Lee, S.H.; Cho, H.K(2 articles)
2020	Kim, S.K. & Lee, S.H.; Kim, J.Y.; Kim, S.H. & Lee, B.I.(2 articles); Kim, T.Y.; Jung, H.J.& Lee, B.I.; Cho, Y.K. & Kim, S.J.; Choi, J.Y. & Lee, B.I.

## 2. 연구 참여자 및 연구주제 동향

### 1) 연구 참여자

분석논문의 연구 참여자 동향은 표 5와 같다. 연구 참여자는 크게 영(유)아, 성인, 그리고 문헌고찰이나 문헌연구가 포함된 기타로 구분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9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치료사, 사회복지사, 원장, 원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12편, 11편이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28.9%로 나타났는데, 만 2세 미만의 영아만 대상으로 한 분석논문이 16편이었으며,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일부 포함된 논문이 8편, 영아와 모(한편만 영유아기 아동과 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이었다.

<Table 5> Participants

Unit : N (%)

Division	Participants									
	Young children				Adults					
on	Infant & toddler	Young children	YC &their mothers	Teachers 22	Pre-service 7	Related professionals	Parents (families)	Parents+ professionals	Others	
N	16	8	9	29	7	12	11	3	26	
Total		33 (28.9)				55 (48.2)				(22.8)

분석논문의 중점 장애유형에 대한 동향은 표 6과 같다. 분석논문의 중점 장애유형

을 살펴보면 장애위험(14.0%)과 발달지체(13.2%), 그리고 자폐범주성장애(1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58편의 분석논문이 특정 장애유형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다수 분석논문은 여러 장애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Table 6> Types of disabilities Unit :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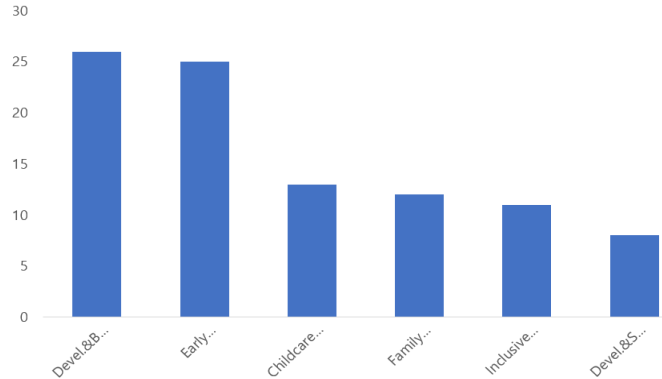
Division	At risk	Types of Disabilities						
		DD	ASD	Emotional & Behavioral	Speech & Lang.	Orthopedic	Hearing Impairment	Others(Visual impairment, Health impairment, etc)
Total	16 (14.0)	15 (13.2)	14 (12.3)	2 (1.8)	4 (3.5)	1 (0.8)	3 (2.6)	4 (3.5)
		42 (36.8)						

**2) 연구주제 동향**

분석논문의 연도별 연구주제 동향은 표 7과 그림 2와 같다.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 중 ‘발달 및 행동’에 대한 연구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조기개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2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및 행동’에 대한 연구는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문제행동과 관련된 논문이었다. 그 밖에 보육교사 및 보육기관(12.3%), 가족지원(10.5%), 통합교육(9.6%)과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기타에는 동향분석이나 메타분석을 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의 범주에 포함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밖에도 ‘장애인권’과 같이 소수주제에 속하는 논문이 기타에 포함되었다.

<Table 7> Research topics Unit : N (%)

Topics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Development & behavior		4	5	7	8	3
Early intervention and related services		4	5	9	2	5	25 (21.9)
Childcare related		3	3	2	6	-	14 (12.3)
Family supports		1	2	1	2	6	12 (10.5)
Inclusive education		4	1	2	1	3	11(9.6)
Development & screening tests		4	-	-	3	1	8 (7.0)
Others		3	3	6	3	3	18 (15.8)
Total		23	19	27	24	21	114



<Figure 2> Number of articles by Research topics

### 3. 연구유형 및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동향

#### 1) 연구유형 동향

분석논문의 연구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설문 조사연구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헌연구와 면담을 포함한 질적 연구가 각각 21.1%, 1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및 질적연구에는 개별면담을 사용한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포커스집단면담, 사례연구, 저널 등을 사용한 논문이 포함되었다. 문헌연구에는 문헌분석, 메타분석, 문헌고찰을 한 논문이 포함되었다. 기타에는 언어 및 발달능력이나 특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Table 8> Research method

Unit : N (%)

Division	Types of Research							
	Experimental D	Survey	SSD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for diagnostic tools	Research synthesis	Blended research	Others
	12(10.5)	28(24.6)	8(7.0)	21(18.4)	8(7.0)	24(21.1)	2(1.8)	11(9.6)

####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동향

분석논문 중 12편이 실험연구, 8편이 단일대상연구를 실행하였다. 실험연구 논문과 단일대상연구 논문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동향은 표 9와 같다. 실험연구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독립변인은 부모교육·양육지원 프로그램(5편)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조기중재 프로그램(3편)이 많았다. 실험연구 논문의 종속변인으로는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4편)과 양육효능감(4편)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3

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대상연구 논문의 독립변인은 각기 달랐던 반면,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3편으로 가장 많았다. 단일대상연구 8편 중 7편이 중다간헐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한편이 ABAB설계를 사용하였다.

**<Table 9> Variables of experimental research and single subject design**

Studies (12)	Experimental Desig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GYeon(2018)	Case-based learning using video clips	Efficacy for problem behaviors, teaching 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Kim & Song(2017)	Parent education	Parenting efficacy, stress for parenting	
Kim & Lee(2020)	User-friendly parent education	Parenting efficacy, stress for parenting, mother-child interaction	
Kim & Park(2017)	Home visit parent training	Parenting efficacy, mother-child interaction	
Back(2016)	Mother-child rearing program	Attachment, stress for parenting	
Yang & Lee(2019)	Parent education for social inter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Wee & Park(2016)	Rearing program for play	Parenting efficacy, mother-child interaction	
Lee, etc(2018)	Forest activities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Lee, etc(2016)	Early intervention for cognitive devel.	Cognitive devel., executive functions	
Cho & Kim(2018)	Early intervention	Development, parenting capability, deliver' s capability	
Jin & An(2018)	Humans with disabilities' right education	Consideration, sensibility of human rights, etc	
Choi & Ji(2020)	Early intervention for families	IFSP validity, development	
Studies (8)	Single-subject Design		
	Design	DV	IV
Yang & Moon(2016)	Multiple probe baseline	Language intervention using sign system	Initial & responsive speech, clear speech
Yoon & Lee(2017)	Multiple probe baseline	Environment-based intervention	Joint attention
Lee & Lee(2019)	Multiple probe baseline	Routine-based intervention	Play participation, achievement of devel.
Lee & Jeon(2020)	Multiple probe baseline	Sensory integration	Parent-child interaction
Lee & Lee(2018)	Multiple probe baseline	Transition and Ecoic	Mand
Jung & Kim(2016)	Multiple probe baseline	Responsive training	Extension verbal, social interaction
Jin & Lee(2019)	Multiple probe baseline	Responsive edu.	Mother-child social interaction
Choi & Jung(2019)	ABAB	Functional-based intervention	Aggression, task performance behaviors

#### 4.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와 본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한 카테고리인 학술지별, 연구 참여자별, 연구유형별, 그리고 연구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술지 동향 분석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 동향분석이므로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와 본 연구 모두 특수교육 분야의 학술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영아'라는 연령적 특징 때문에 「유아특수교육연구」에서 가장 많은 분석논문이 나왔다. 「유아특수교육연구」에 게재된 분석논문은 김태영(2014)에서는 20%, 조윤경 외(2016)에서는 28%,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35%를 차지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동향 분석

관련 주제 논문의 연구 참여자는 영아가 다수를 이루는데 조윤경 외(2016)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김태영(2014)은 41%, 본 연구는 29%로 영아 대상 논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48%로 영아 대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두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장애 유형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한 장애위험과 발달지체를 살펴보았는데, 장애위험 비율은 김태영(2014)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본 연구가 14%, 조윤경 외(2016)가 9%로 나타났다. 발달지체 비율 또한 김태영(2014)이 15%로 가장 높았으며, 조윤경 외(2016)와 본 연구가 12%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 3) 연구유형 동향 분석

연구유형 동향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는데, 두 선행연구는 단일대상연구를 포함한 실험연구, 설문조사연구, 진단도구개발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연구(약 25%), 질적연구(약 18%), 문헌연구(약 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실험 및 단일대상연구, 설문조사연구, 진단도구개발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및 단일대상연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구는 김태영(2014)(44%)이었으며, 진단도구개발연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구는 조윤경 외(2016)(35%)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연구가 25%로 세 연구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주제 동향 분석**

세 연구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구주제는 ‘조기중재’, ‘발달 및 선별검사’, 그리고 ‘발달 및 행동’이었다. ‘발달 및 행동’과 관련된 주제는 김태영(2014)(36%)과 본 연구(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조윤경 외(2016)는 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발달 및 선별검사’와 관련된 주제는 두 선행연구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7%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조기중재’와 관련된 주제는 조윤경 외(2016)와 본 연구가 20%, 22%로 김태영(201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10> Analysis of comparing with previous studies** Unit : % \*

Division		Kim, T.Y.(2014)	Cho, Y.K. & others (2016)	This study	
Journals	Area of SE	79	63	81	
	Korean Journal of ECSE	20	28	34	
Participants	Infants & toddlers	41	55	29	
	Adults	26	28	48	
	Types of Disabilities	At risk	17	9	14
		DD	15	12	12
Types of research	Exper.D & SSD	44	20	18	
	Research for diagnostic tools	20	35	7	
	Survey	17	17	25	
Topics of research	Early intervention	15	20	22	
	Devel. & screening test	30	36	7	
	Devel. & behavior	36	13	23	

\* 소수점은 반올림 혹은 반내림 하였음.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를 대상으로 한 114편의 논문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6년 이전의 동향분석을 한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윤경 외, 2016)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도별 학술지 및 연구자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큰 편차없는 비율을 보였는데, 그중 2018년과 2019년이 27편(23.7%)과 23편(21.1%)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1-2014년까지 분석한 김태영(2014)과 비교해보면 역시 연도별 큰 편차없는 비율을 보였으며, 그중 2011년도에 6편(15%)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5년까지 분석한 조윤경 외(2016)와 비교했을 때는 2013-2015년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4년에 16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듯이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이므로 본 연구와 두 선행연구 모두 특수교육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 분야 학술지 중 「유아특수교육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유아특수교육연구」가 약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2016년 이후로 「유아특수교육연구」에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운경 외, 2016)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동향도 분석했는데, 연도별과 상관없이 대체로 2인 연구자 논문(48.2%)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인(21.9%), 3인(17.5%) 연구자 논문이 많았다. 5년간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를 분석한 결과, 조운경(10편)과 이병인(9편)이 단독 및 공동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9편으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28.9%였는데, 영아 대상은 16편,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일부 포함된 논문이 8편,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성인보다 영아 대상 논문이 더 많았는데, 김태영(2014)은 41%, 조운경 외(2016)는 55%가 영아 대상 논문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련 전문가 참여 논문의 비율이다. 교사 이외의 다양한 전문가(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참여 논문이 각각 2%(김태영, 2014), 8%(조운경 외, 2016)로 두 선행연구에서는 저조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논문이 총 15편(13.2%)으로 교사 이외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조운경 외, 2018; 표윤희, 2014; Bruder, 2010; Dunst, Bruder, & Espe-Sherwindt, 2014)에서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를 위한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전문가팀(교사, 치료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논문 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증가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영아의 장애유형을 두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조운경 외(2016)에서는 장애위험과 발달지체를 제외하고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절대적 비교가 어려웠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연구 모두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장애위험과 발달지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문제행동을 포함한 '발달 및 행동'논문이 22.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기개입 및 관련 서비스'논문(21.9%)이 가장 많았다. 두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와 유사하게 '발달 및 행동'에 대한 논문이 많았는데, 특히 김태영(2014)은 '발달 및 행동'관련 논문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운경 외(2016)는 주제 중 '발달 및 선별검사'관련 논문이 3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김태영(2014)에서도 30%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7%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를 해석해보면, 과거에는 '발

달 및 선별검사'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이후로는 좀 더 다양한 주제 즉 '문제행동', '가족지원', '조기중재(개입)'등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여러 전문가들(김성애 외, 2011; 박소영 외, 2020; 조현근, 이병인, 2014)이 지적했듯이 장애영아의 경우 영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조기중재나 가족지원,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연구유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연구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헌연구(21.1%)와 질적 연구(18.4%)가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와 비교 시, 조운경 외(2016)에서는 단일대상연구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실험연구에 포함시켰으므로 김태영(2014)과 본 연구에서도 실험연구와 단일대상연구 비율을 합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김태영(2014)은 실험·단일대상연구가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조운경 외(2016)는 20%, 본 연구는 18%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7%)을 보였던 진단도구개발 연구가 조운경 외(2016)에서는 35%, 김태영(2014)에서는 2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연구는 본 연구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두 선행연구는 모두 약 17%로 조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아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많았기 때문에 두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운경 외, 2016)에 비해 설문조사연구 논문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

연구유형 중 실험연구와 단일대상연구의 독립 및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 논문(총 12편)의 독립변인으로는 부모교육·양육지원 프로그램(5편)이 가장 많았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이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단일대상연구(총 8편)의 독립변인은 각기 달랐으며,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3편으로 가장 많았다. 단일대상연구 연구설계로는 한편을 제외하고 모두 중다간헐기초선을 사용하였다. 실험연구와 단일대상연구의 독립 및 종속변인 분석은 조운경 외(2016)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김태영(2014)과 본 연구를 비교하였다. 김태영(2014)의 실험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13편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독립변인은 발달검사도구와 놀이도구·활동이 각각 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속변인은 언어 및 의사소통이 6편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영(2014)의 단일대상연구는 총 5편이었으며, 독립변인은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각기 달랐으며 종속변인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4편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영(2014)의 단일대상연구 설계 또한 본 연구결과와 같이 한 편을 제외하고 모두 중다(간헐)기초선을 사용하였다.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관련 문헌분석한 두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운경 외, 2016)와 비교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를 재분석해 보았다. 사실 본 연구와 두 선행연구는 논문 선정기준과 분석 틀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연도

의 차별성을 두되, 선정기준과 분석 틀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좀 더 면밀한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 2015년 이후의 영아 관련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 연구 유형이나 주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몇몇 긍정적인 측면들(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연구주제의 다양성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추구해야 하는 연구 방향(예: 교사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연구,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사용 연구)을 제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와 이들 가족을 위한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참고문헌

- Bruder, M. B. (2010).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 promise to children and families for their future. *Exceptional Children, 76*(3), 339-355.
- Baek, Y. S., & Lee, M. H. (2014). A current state and needs of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the special educational institute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1), 97-131.
- [백유순, 이명희 (2014).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장애 영아 지원 실태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4**(1), 97-131.]
- Baek, E. R., & Lee, E. M. (2019). A study on parenting experience and needs for support of mothers who care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3*(1), 21-49.
- [백은령, 이은미 (2019). 발달지연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23**(1), 21-49.]
- Chang, J. E., Lee, S. H., & Lee, J. Y. (2016). Research trends and issues for improving joint attention in infants and toddlers at risk an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5*(2), 5-30.
- [장지은, 이소현, 이지연 (2016). 자폐범주성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의 공동관심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동향 및 과제. **특수교육, 15**(2), 5-30.]
- Cho, H. G. (2019b). A review of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qualitative research related to families of infant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With a special refernce to Korean special education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published from 2007 to 2018-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4), 71-101.
- [조현근 (2019b). 장애 영유아 가족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2007~2018년까지 발간된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9**(4), 71-101.]

- Cho, Y. K. (2012). The perception of service providers on current status of and needs for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children under age 3 with developmental delay.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1), 39-66.  
[조윤경 (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 요구: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6**(1), 39-66.]
- Cho, Y. K. (2013). Connective procedure of disability finding, diagnosis and early intervention service and support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300-326.  
[조윤경 (2013).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 **보건사회연구, 33**(1), 300-326.]
- Cho, Y. K., Kim, S. J., Song, Y. H.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garding under the age of 36 months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Literature review of the studies published in 2006-2015.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3), 23-53.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6). 장애 관련 영아 대상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06년~2015년. **유아특수교육연구, 16**(3), 23-53.]
- Cho, Y. K., Kim, S. J., Song, Y. H. (2017). The feasibility of the main factors in early intervention for developmental delayed infants and toddlers: Based on the group interviews with the interventionist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3), 23-53.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7). 현장 전문가 소집단 면담을 통한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 주요 요소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7**(1), 115-145.]
- Cho, Y. K., Kim, S. J., Song, Y. H. (2018). The present implementing status and support needs of early intervention participating therapists in main factors of early intervention. *Special Education Research, 17*(2), 35-62.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8).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 시행 치료사의 주요 요소별 실행 현황과 지원 요구. **특수교육, 17**(2), 35-62.]
- Dunst, C. J., Bruder, M. B., & Espe-Sherwindt, M. (2014). Family-capacity-building i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Do context and setting matter? *School Community Journal, 24*(1), 37-48.
- Eom, J. M., & Yoon, H. S. (2015). Domestic research and trend analysis about the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disabled children: 2004-201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5*(3), 25-49.  
[엄진명, 윤현숙 (2015). 융복합 연구를 위한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중재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4-2013. **자폐성장애연구, 15**(3), 25-49.]
- Han, Y. J., Kim, Y. H., Lee, Y. A. (2018).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model for early detection and early intervent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focused on Suw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8*(3), 29-59.  
[한연주, 김용희 (2018).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통합모형 구축-수원시를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연구, 18**(3), 29-59.]

- Je, M. H., Lee, B. I., & Kim, M. S. (2020).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using Single-subject designs: Before and after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7).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20(2), 153-191.  
[제민희, 이병인, 김미성 (2020). 영·유아 조기중재 관련 단일대상연구 동향 분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이전과 이후 비교. *유아특수교육연구*, 20(2), 153-191.]
- Jeong, H. Y., Ha, S. Y., & Sin, E. H. (2015).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arly identifica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bility. -With a focus on Busan area-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7, 73-98.  
[정혜윤, 하소연, 신은혜 (2015). 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7, 73-98.]
- Kang, S. L., & Cho, H. G. (2018).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n research related to the play of infants &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3), 217-237.  
[강성리, 조현근 (2018). 장애 영유아 놀이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2017년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8(3), 217-237.]
- Kim, J. H., & Cha, J. K. (2017a). A review of literature on trends and methods of domestic studies about teac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6(4), 187-211.  
[김진호, 차재경 (2017a).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방법 고찰. *특수교육*, 16(4), 187-211.]
- Kim, J. H., & Cha, J. K. (2017b). A review of experimental studies on interven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1), 45-66.  
[김진호, 차재경 (2017b). 장애 영유아 부모관련 국내 실험연구 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7(1), 45-66.]
- Kim, J. M., & Jeong, E. J. (2015). The effect of the maternal responsiveness on children's pivotal behavior, intelligence and multiple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81-99.  
[김정미, 정은주 (2015).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이 아동의 중심축 행동과 지능 및 다중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81-99.]
- Kim, J. Y. (2018a). Review of core components of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1), 125-142.  
[김지영 (2018a). 장애 영아 조기중재 요소 고찰: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8(1), 125-142.]
- Kim, J. Y. (2018b). Trend and issues in research related to the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1), 153-171.  
[김지영 (2018b). 장애 영아 관련 국내연구 동향 및 발전과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153-171.]

- Kim, M. Y.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ssociated with children at disability risks or with disabilities under 36 month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4), 249-279.  
[김미영 (2020). 장애위험 및 장애 영아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20**(4), 249-279.]
- Kim, S. A., Lee, J. H., Park, H. Y., & Lee, B. I. (2011). A study on the supporting free publ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ing center.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3*(2), 123-158.  
[김성애, 이정현, 박현옥, 이병인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장애영아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 **지적장애연구, 13**(2), 123-158.]
- Kim, S. S. (2019). Analysis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for famil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55-164.  
[김삼섭 (201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2), 155-164.]
- Kim, T. Y. (2014).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targeting for young children at risk or with special need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2), 75-98.  
[김태영 (2014). 장애위험 및 장애영아 대상 국내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75-98.]
- Kim, T. Y. (2017). Research synthesis on problem behavior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al needs: From 2010 up to May, 2017.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4), 125-155.  
[김태영 (2017). 일반 영유아 대상과 장애위험/장애 영유아 대상 문제행동 연구동향의 비교분석: 2010-2017년 5월.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8**(4), 125-155.]
- Kim, T. Y. (2019). Research synthesis of foreign countries on challenging behaviors of young children: 2011-October, 2018.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2), 33-65.  
[김태영 (2019)\*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해외 연구동향: 2011-2018년 10월.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0**(2), 33-65.]
- Nam, B. R., & Lee, S. H. (2014). The effects of mothers mediated joint attention-focused play on precursors of joint attention and joint attention behaviors of toddl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4*(1), 21-45.  
[남보람, 이소현 (2014). 어머니가 실행하는 공동관심 중심의 놀이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영아의 공동관심선행기술과 공동관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14**(1), 21-45.]
- Park, S. Y., Baek, J. N., Hong, S. H., Lee, J.Y., & Baek, S. S. (2020). The support needs of the parents on strengthen the compulsory education right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3), 249-267.  
[박소영, 백종남, 홍사훈, 이정윤, 백상수(2020). 유아기 의무교육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의 지원요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3), 249-267.]

- Park, J. Y., & Lee, B. I. (2018). An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experimental research about infants & young children with autis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7-2017.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4*(1), 1-33.  
[박지윤, 이병인(2018). 자폐성장에 영유아 관련 실험연구 동향분석: 2007-2017년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4(1), 1-33.]
- Pyo, Y. H. (2014). Review of research trends based qualitative evaluation index on collaborative team approach intervention between teacher and therapist.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7*(2), 293-320.  
[표윤희 (2014).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와 치료사 간 협력적 팀 접근 중재의 질적 평가 지표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293-320.]
- Seong, T. J. & Si, K. J. (2014). Research Methodology. Hakjisa.  
[성태제, 시기자 (2014). 연구방법론. 학지사]
- Song, M. J. (2019). Analysis of trends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single target experimental studies with maladaptive behavior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3), 35-64.  
[송미정 (2019). 발달지체유아를 위한 문제행동 중재 단일대상연구의 동향 및 질적 지표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3), 35-64.]
- Song, Y. H., & Cho, Y. K. (2016). Recognition, present condition and support need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on screening for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3*(2), 23-52.  
[송영희, 조윤경 (2016). 발달지체 영아의 선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실태와 요구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23-52.]

<국문 초록>

## 2016-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동향 분석 :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김 태 영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6-2020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의 논문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 동향(연도별 학술지 및 연구자, 연구 참여자 및 연구주제, 연구유형 및 실험·단일대상연구 변인)을 파악하고, 선행 문헌분석(김태영, 2014; 조운경 외, 2016)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다양한 검색엔진과 주요 전문학술지 직접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논문을 선별한 결과 총 11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연도별 학술지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대체로 비슷한 비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석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특수교육 분야가 많았는데, 특히 「유아특수교육연구」(34.2%)가 가장 많았다. 연구자의 동향분석 결과, 2인 연구자 논문(48.2%)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인 연구자 논문(21.9%)이 많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 동향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48.2%)이 가장 많았으며, 영아 대상 논문은 28.9%였다.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발달 및 행동’논문(22.8%)과 ‘조기개입 및 관련 서비스’논문(21.9%)이 가장 많았다. 셋째, 연구유형 동향 분석결과 설문조사연구(24.6%)와 문헌연구(21.1%)가 가장 많았다. 연구유형 중 실험 및 단일대상연구의 변인을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12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독립변인은 부모교육·양육지원 프로그램이었으며, 종속변인은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이었다. 단일대상연구(8편)의 독립변인은 모두 달랐으며,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많았다. 넷째, 2016년 이전에 같은 주제로 문헌분석한 선행연구(김태영, 2014; 조운경 외, 2016)와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 동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와 달리 두 선행연구에서는 성인보다 영아 대상 논문이 많았다. 연구주제 동향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발달 및 행동’이 많았으나 두 선행연구는 ‘발달 및 선별검사’논문 또한 많았다. 연구유형 동향에서도 설문조사연구 논문이 많았던 점은 본 연구결과와 같으나 두 선행연구에서는 진단 도구개발연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와 두 선행연구는 선정기준과 분석틀에 차이가 있어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해 선행 문헌분석과 비교분석할 때 선정기준과 분석틀을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장애, 장애위험, 영아, 연구동향, 비교분석

논문 접수(Received): 2021. 02. 09. / 심사 시작(Examined): 2021. 02. 09. / 게재 확정(Accepted): 2021. 03. 04.